북부지방산림청, 양평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논의


▲ 양평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협의회

15개 기관 참여해 특별방제구역 방제 총력 대응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기·수도권 내 확산을 막고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18일 양평군 소재 쉬자파크에서 열린 '양평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협의회'에 참석했다.

양평군이 주관한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양평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방제 총력 대응과 인근 수도권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양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수립 등 유기적인 협업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군, 산림기술사 등 15개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평권역의 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연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국유림관리소-양평군 협업 방제 체계 구축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소나무류 이동 단속 강화 ▲피해도와 확산 중요도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방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총력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업 방제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평권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소화시설 현장점검 실시

초기 대응 및 인명·시설물 보호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은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13일 충남 보령시를 방문해 산불소화시설 운영 실태와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산불소화시설은 건조한 시기에 사전 살수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발생 시 확산 저지 및 초기 진화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주변에 설치된다.


▲ 산불소화시설

중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한 국립기억의 숲 산불소화시설은 ▲수관수 막타워 2기 ▲60톤 규모 물탱크 ▲기계실 ▲엔진펌프 등을 갖추고 있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시설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재선충병 확산 차단 마련 위한 회의 개최

보전 소나무 숲 공간정보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중요 소나무숲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방제벨트 및 보전 소나무숲 공간정보 구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방제벨트 및 보전 소나무 숲 대상 지방정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약 40명이 참석해 공간정보 구축현황 등 용역 주요 과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방제벨트는 재선충병이 청정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경미지역이 빠르게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외곽에 조성하는 폭 2km 이상의 국가주도 방어체계이다. 산림청은 지역별 피해 정도, 방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전국 약 800km의 국가방제벨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금강소나무 군락지, 국립공원, 사찰림 등 역사·문화적 가치와 산림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보전 소나무 숲 주변 2㎞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나무주사 실시 등 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방제벨트 구축과 보전 소나무 숲 보호는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방제벨트 및 보전 소나무 숲에 대한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해 청정·경미지역의 재선충병 확산 차단과 보전 소나무 숲으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포르투갈과 손잡고 산불·산림병해충 공동대응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포르투갈 농업해양부와 '통합산불관리 및 산림병해충 상호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산림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한-포르투갈 산림협력을 강화했다.

박은식 산림청장과 조세 마누엘 페르난데스 포르투갈 농업해양부 장관이 참석해 체결한 이번 협약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불관리 등 통합산불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교류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각각 2025년과 2017년 초대형 산불을 경험한 국가로, 산불 예방부터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산불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위험예보·확산예측 등 첨단 기술 활용, 산불 분야 전문인력 교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제 및 감염목 처리방법 등 대응정책과 우수사례 공유, 관련 분야 공동연구 활성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으로 소각산불 발생 사전 차단

11월 16일~30일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2%를 차지하며,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수확과 과수 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과수 잔가지 등으로 농가에서 이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영농부산물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파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와 계도 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특별점검 실시

정비 완료지 사후관리 및 예정지 이행 실태 챙겨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유림 하천·계곡 정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하고, 남은 과제들을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챙겨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전수조사에 나서 86개소 적발하였으며, 현재까지 52개소에 대하여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 등 정비완료하였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관할 구역인 포항, 영주 등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의 정비 실태를 면밀히 살핀다.

여름철까지 집중적으로 정비 추진한 평상·방갈로 등 상행위 시설뿐 아니라, 경작·가설건축물 등 非상행위시설까지 확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점검 실시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